



중기중앙회, 'KBIZ AMP 20기' 6개월 과정 시작
중기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인 'KBIZ AMP (Advanced Management Program of SMEs) 제20기'가 지난 20일 입학식을 갖고 6개월간 일정에 들어갔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KBIZ AMP는 중기중앙회가 2008년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으로, 정부·국회·유관기관은 물론 전국 891개 업종별 협동조합과 223만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정책·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중기중앙회



HK이노엔, 서울대공원 레서판다 먹이숲 조성
HK이노엔이 지난 18일 경기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에서 '레서판다 먹이숲 조성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임직원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HK이노엔 임직원과 가족 60여 명은 서울대공원 레서판다 동물사 내에 대나무 종류인 청죽과 산죽(조릿대) 270여 그루를 식재했다. /HK이노엔



동아오츠카, '장애인의 날' 맞아 복지지원금 전달
동아오츠카는 전날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후원과 함께 저사 장애인 근로자 및 장애인 가족을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아오츠카는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종목에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오츠카



동서식품,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
동서식품이 후원하고 한국기원이 주최한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시상식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오른쪽부터) 우승자 변상일 9단, 동서식품 김광수 사장 등 대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동서식품



신한은행-OCI홀딩스, 미래성장사업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OCI홀딩스와 '생산적 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 동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반도체·첨단소재를 비롯한 미래 성장사업과 글로벌 태양광 밸류체인 구축 관련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과 주선을 추진한다. (왼쪽부터)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삼성전자·LG전자, '밀라노 디자인위크' 동시 출격

삼성전자, AI 시대 디자인 선행 AI 동반자 콘셉트 기기 첫 공개
LG전자 'SKS', 유럽본격 진출 신제품 '트라체' 캡슐 컬렉션 눈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디자인 행사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 2026'에 나란히 출전했다.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인간 중심 디자인 철학을 LG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프리미엄 빌트인 라인업을 전면내 내세우며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삼성전자, AI·감성 결합 디자인 전면에

삼성전자는 슈퍼스튜디오 피우(Superstudio Piu)에 12개 몰입형 공간으로 구성된 '삼성 디자인 오픈랩'을 열었다. 실험적 미래 콘셉트와 최신 제품 등 120여 점의 디자인 자산을 전시하며 'AI 시대의 디자인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전시의 핵심은 'AIX (EI+HI)' 공식이다. AI의 가치가 인간의 감성 지능(EI)과 의도(HI)와 결합될 때 비로소 증폭된



2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밀라노 디자인위크 2026'에 참가한 삼성전자 부스의 아날로그 감성을 디지털로 확장한 공간에서 사운드가 어우러져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다. /삼성전자

다는 철학으로, 단순 기능 경쟁을 넘어 기술의 감성적 공명을 강조한다. 이번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AI 동반자' 콘셉트 기기 '프로젝트 루나(Project Luna)'도 눈길을 끌었다. 둥근 디스플레이와 움직이는 헤드를 갖춘 소형 기기, 스마트폰 등 특정 기기에 AI를 가두지 않고 가정 내 여러 기기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공유형 AI(Communal AI)' 개념을 형상화했다. 갤럭시 폴더블폰 아트월, 투명 스피커, OLED TV(S95H), 130인치 마이크로 RGB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이 어우러진 공간을 연출했다.

삼성전자 DX부문 최고 디자인 책임자(CDO) 마우로 포르치니 사장은 "사람의 의도와 공감, 상상력이 결합된 디자인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지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SKS' 유럽 본격 상륙

LG전자는 같은 기간 밀라노에서 열리는 주방 가전·가구 박람회 '유로쿠치나(EuroCucina)'에 참가했다. 2024년 대비 약 2배 확대된 840㎡ 규모의 전시관을 꾸렸고, 전시 제품 수도 20% 늘렸다. 올해 LG전자의 방점은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재단장한 초프리미엄

브랜드 'SKS'의 유럽 본격 진출이다. SKS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비아 만초니 47번지 SKS 밀라노 쇼룸에서는 'Feeding the Future'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I 기반으로 식재료 보관부터 조리까지 음식의 생애 주기를 안내하고, 음식물 낭비 최소화를 주제로 한 테이스팅 경험으로 마무리되는 구성이다.

신제품 'Tracce(트라체)' 캡슐 컬렉션도 이목을 끈다. 이탈리아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 에토레 소트사스, 슈퍼스튜디오의 역사적 그래픽 패턴을 SKS 언더카운터 와인셀러와 컨버터블 냉장고에 적용한 한정 컬렉션이다.

제품 기술력도 강화됐다. 'AI 코어 테크' 기반의 식기세척기에는 디지털 탁도 센서로 세척 3단계를 분석해 물 온도와 세제량을 자동 조절하는 'AI 센스클린' 기능이 탑재됐고, 오븐에는 내부 카메라로 식재료를 인식해 자동요리 메뉴를 추천하는 '고메 AI' 기능이 적용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동국제강그룹, '1사 1병영' 캠페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에 위문금 3000만원 전달

동국제강그룹은 20일 자매결연 부대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과 '1사 1병영' 행사를 열고 위문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1984년 육군제2신속대응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1995년 교류가 일시 중단됐지만, 지난 2012년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이 '1사 1병영' 캠페인 형태로 이를 재개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도 단순 위문금 전달에서 벗어나 부대 상황에 맞춘 교류 활동으로 확대됐다. 계곡 트래킹과 헬스기구 지원, 워크숍 장소 지원 등이 이뤄졌으며, 위문 규모도 확대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국제강그룹은 2사단 노도부대가 지난 2021년 제2신속대응사단으로 재창설되고, 회사가 2023년 3개사로 분



'동국제강그룹-제2신속대응사단 1사 1병영 행사 위문금 전달식'에서 (오른쪽부터) 장세욱 동국제강그룹 부회장과 임태호 제2신속대응사단장이 사단 역사관 내 '렉스틸 렌티큘러 월'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홀딩스

할된 이후에도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제2신속대응사단 역사관 재개관을 기념해 동국제강그룹이 기부한 '렉스틸 렌티큘러 월' 앞에서 열렸다. 회사는 컬러강판 제조기술을 적용해 보는 각도에 따라 동국제강그룹 로고와 사단 로고가 각각 드러나도록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dhalethale@

JW이종호재단, 장애 예술인 발굴한다

오는 6월 1일까지 'JW아트어워즈' 첫 참가 수상 'JW기대주상' 신설

JW중외제약의공익재단JW이종호재단은 오는 6월 1일까지 '2026 JW아트어워즈'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2026 JW아트어워즈'에는 만 16세 이상 장애인이 참여 가능하며 1인당 1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한국화, 서양화 등 순수미술 부문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창작한 캔버스 10호 이상~60호 이하의 작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폼을 통

해 참가신청서와 작품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다양한장애 예술인에게 수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3년 이내 본상 수상자(대상~장려상)는 참가가 제한된다.

JW아트어워즈는 올해로 12회를 맞는 국내 기업 주최의 최초 장애인 미술 공모전이다. 특히 올해는 JW아트어워즈를 통해 미술 공모전에 처음 참가한 작가 중 작품성을 인정받은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JW기대주상'을 신설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

KAI,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확대

상생협력기금 22억 추가 출연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지난 20일 경남 사천 본사에서 '상생업체 경영설명회'를 열고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KAI는 금융 지원과 복지 확대를 포함한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산 역량 및 수주 경쟁력 제고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정익·회전익·무인기·위성 등

전 분야에 걸친 미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을 제시했다.

KAI는 약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고가 설비 투자 시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 조성한 100억원 규모 상생협력기금에 올해 22억원을 추가 출연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협력사 복지 지원도 확대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지난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도 같은 규모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유혜은 기자

청호나이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본상

공기청정기 '서밋타워'

청호나이스 공기청정기 '서밋타워'(사진)가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21일 청호나이스에 따르면 서밋타워는 청호나이스 시그니처 컬러인 '클라우드 베이지'와 '토포 브라운'을 적용해 다양한 인테리어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입체감을 강



조한템바보드 디자인은 세련되고 감각적인 공간 연출을 돕고 색상과 밝기 조절이 가능한 무드등은 취향에 맞는 분위기 설정을 지원해 디자인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갖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 ◆한국환경공단 ◇상임이사 △자원순환이사 문갑생
-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 김은영
- ◆한국관광공사 ◇임명 △민병선 관광산업본부장(상임이사) △김영미 관광AI혁신본부장(상임이사) ◇승진 및 전보(본부장) △박윤숙 경영혁신본부장

부음

- ▲배길순(향년 80세)씨 별세, 배재수(BBS 기자)·재용(방위사업청 중령)·재희(전 간호사)씨 부친상, 박혜윤(남강고 교사)씨 시부상, 윤한준(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씨 장인상 = 20일 오후 8시 36분, 빈소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2일 오전 10시, 장지 국립서울현충원. 031-787-1500.